

괭생이모자반 습격 전남 서남해안 비상

중국서 발생 대규모 떠돌이·해안 등 수천t 유입 양식장·해수욕장 피해 우려...전남도 예찰 강화

중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괭생이모자반이 제주를 거쳐 전남 해안으로 유입될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 성수기를 앞둔 전남도내 해수욕장 인근 주민, 양식장 어민 등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 우이도와 홍도 인근에 약 1000t(추정), 해남 송지면 인근에 약 1600t의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된 것으로 최근 관측됐다. 신안 칠발도, 진도 조도·독거도·외병도 주변에서도 소량이 발견됐다.

전남도는 괭생이모자반이 제주에서 유입됐는지, 자생했는지를 파악하려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해안에 괭생이모자반이 대량 유입되면 소형 어선 등의 스크루나 그물에 걸릴 우려가 있어 조업에 방해되고 양식장 피해도 생길 수 있다. 악취를 풍기면서 미관도 해

쳐 여름 피서철을 앞둔 해수욕장에는 부정적이다.

전남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의 위성사진을 분석하고 시·군별로 예찰을 강화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시험조사선과 드론을 이용한 현장조사 결과 동중국해 북부해역 및 제주 서남부 해역에서 괭생이모자반 덩어리(2~5m)가 밀집돼 수m에서 수km의 띠를 이루고 있는 것이 관측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제주 먼바다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괭생이모자반을 파악하기 위해 고해상도 위성(미국 Landsat-8호)의 분석을 통해 제주 서부와 제주 북부 추자도 주변 해역에서 괭생이모자반 띠를 확인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서쪽 20km에서 발견된 가장 큰 띠(6km×10~20m)는 1주일간 주변에서 머물다가 서북쪽으



최근 1600t의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된 것으로 관측된 해남군 송지면 일대. 양식장, 해수욕장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지속된 서풍과 남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 북서부~서해 남부 연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비안전부가 지난 18~21일 예찰한 결과 신안군 가거초 서쪽해역과 제주도 예월읍 북동쪽 2마일 해상에서 괭생이모자반 덩

어들이 발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 전남에는 대규모 유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며 “중국에서 발생한 괭생이모자반이 전남 해안까지 접근할 여지도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옛 도청현판 총탄 흔적 감정 의뢰키로

전남도, 이번주 국과수에

전남도는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사용됐던 옛 전남도청 현판(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5·18 관련성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로 했다. 현재 전남도기록관(청사 민원동)에 보관 중인 옛 현판은 가로 31cm, 세로 130cm 크기로 총탄 흔적으로 볼 만한 파손 흔적이 2개 있으며, 도청 직원들 사이에 “5·18 당시 계엄군 총탄에 맞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전남도는 29일 전남도기록관에 보관 중인 옛 현판과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성 여부를 규명하려고 이번 주 중 현판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측은 “지난주 국립과학수사원 장성분원에 문의했으나 장비 등이 없어 총탄감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중 국과수 원주 분원에 감정 의뢰하기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라 전남도가 보관 중인 옛 전남도청 현판이 실제 총탄 자국을 품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판명나고 이에 따라 현판의 활용에 대해서 고



민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 현판은 지난 2005년 10월 도청이 전 당시 때어난 무안 도청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관리번호도 ‘행정박물 2016-122’ 부여되고 공공기록물로 지정돼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죽산보 내달 1일부터 상시 개방

환경단체 “효과 미미...4대강 보 전면 개방해야”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영산강 죽산보(나주시 다시면)가 상시 개방된다.

정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죽산보를 비롯한 4대강에 설치된 16개 대형 보(坝) 가운데 6개를 농업용수 이용에 영향이 없는 수위로 우선 개방한다는 방침이지만 환경단체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비판적이다.

정부는 29일 ‘4대강 6개 보 개방 추진, 수자원 이용에 문제 없어’라는 자료를 내고 개방 시점과 개방 수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영산강 죽산보의 경우 기존 관리수위에 따라 3.5m로 유지되던 것이 보가 양수제약수위(2.5m)로 개방되면서 기존보다 1m 낮아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방에 대해 물의 흐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수질 개선에 보탬을 주고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건설된 4대강 보의 물의 흐름을 사실상 정체시켜 강을 거대한 호수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름철 수온이 올라가면 물이 짙은 녹색으로 바뀌면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각 개방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4대강 보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 생태계 등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의 생태계 상황·수자원 확보·보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개방 수위와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날 정부의 대책은 미미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4대강 전체 보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오늘 정부의 대책안은 양수 제약수위까지 0.2~1.25m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22일 발표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라며 “소극적인 방류수위 저하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어려운 만큼 정부는 4대강 전체 보 개방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정부 계획대로 죽산보가 일부 개방되더라도 보 아래 심층수, 진흙 등은 이동 없이 지속되는 상태가 계속돼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승촌보(남구)와 죽산보 모두 개방하고 개방 수위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냉각탑수 점검 29일 광주시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북구청 옥상 냉각탑에서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감염될 수 있는 호흡기질환인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위해 냉각탑수를 수거하고 있다. 북구는 9월까지 관내 백화점과 병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냉각탑수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 안하면 범칙금 12만원

내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내달 3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탭니다가 방치돼 폭염 속에서 생명이 위험이 닥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범규 위반 항목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

행(7만원),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5만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차장 등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한 운전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인적사항 제공의 무도 신선했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안전삼각대를 후방 100m에 설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탄력 조정했다. 이밖에 긴급자동차가 지나가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하도록 한 규정을 좌·우 어느 쪽으로든 피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고자 필요한 경우 발급 대상자 지문을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연합뉴스

술 마시고 학창시절 이야기하다 주먹 휘두른 동창생들



“술을 마시고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휘두른 동창생 3명이 함께 경찰서로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조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한 혐의.

“경찰은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타고 온 순찰차를 보더니 ‘경찰차 운행을 방해하자’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업무도 방해했다”며 혀를 끝.

“2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26)씨 등 3명은 지난 28일 밤 11시40분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노상에서 중학교 재학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시작, 서로 뒤엎겨 주먹으로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분양 전환 아파트 24/35 PY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